

납본 보상 바우처화를 통한 출판 생태계 순환 설계

미래를 대비한 도서관의 디지털 혁신 방안

팀 아비아 (박태정, 한고은)





목차

배경

01 납본이란?

문제의식

02 기존 납본 공백

03 생성형 AI의 등장

해결책

04 납본 혁신의 방향

05 바우처 설계 원칙

06 바우처 운용 흐름

07 정책 추진 경로

효과

08 차별성과
기대 효과

01 납본은 공공보존과 창작 보상의 제도입니다

단순한 제출 의무가 아닌, 국가문헌 보존 + 창작자 보상이 함께 담긴 제도입니다.

납본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업무 중

납본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¹⁾

보상 구조

소장용 자료와 판매용 자료 각 1부씩 제출
판매용 자료 1부에 대한 정가를 **납본 보상금**으로 지급



소장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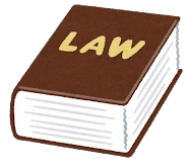


판매용 자료



01 **납본은 공공보존과 창작 보상의 제도입니다**

단순한 제출 의무가 아닌, 국가문헌 보존 + 창작자 보상이 함께 담긴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²⁾

도서관법 제21조

1.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3.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3조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02 기존 독립/전자출판 영역의 납본 공백

9.5%

ISBN 발급
전자출판물 납본율 ³⁾



디지털 납본 통로는 있으나 실제 포섭력은 낮다

02 기존 독립/전자출판 영역의 납본 공백

왜 납본 공백이 발생하는가?

ISBN 미발급 이유(독립출판사) ⁴⁾

필요성 미체감 : 약 51.7%

제도 미인지 : 약 27.6%

식별 체계 밖 출판물 증가

POD, ISBN 없음, 독립 디지털출판
기존 납본 경로와 점점 약화



분산 유통 구조

플랫폼, 직거래, 행사 중심
납본 접점이 약한 유통 방식



제도 밖 누적 가능성 ⁵⁾

연간 약 1만 종 독립출판물 유통 중
상당수 미식별/미납본 가능성 有

즉, 기존 납본 공백은 단순 불이행이 아니라
디지털 및 독립출판의 생산유통 구조와 현행 제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03 생성형 AI의 등장



제도적 쟁점

생성형 AI 기반 대량출간

- 원고 작성, 편집, 표지 제작까지 자동화
- 단기간에 대량 생산 가능
- 형식상 출판물처럼 보이지만 창작 및 편집 경위는 불분명



문제 양상

-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출간
- 납본 신청과 보상 구조에 진입할 가능성
- 창작 가치 인정과 보상 정당성의 혼란 초래

03 생성형 AI의 등장

최근 사례



최근 일부 AI 기반 대량출간 전자책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

국립중앙도서관도 반복/편집물 성격의 전자책에 대해 **납본 거절 사례**를 보임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

경제 > 단독

[단독]AI '딸깍 출판' 최소 9000원, 검증없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11-27 03:50 ▾

한국일보   

사회 ▾ 사건/사고

단독 국립중앙도서관, AI도서 납본 첫 거절... '딸깍 출판' 대책 마련한다

입력 2026.02.02 04:30  11면



최다원 기자

결과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형식만 갖춘 자료도 동일한 현금 보상 구조에 진입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따라서, 납본 제도는 지급 여부보다 지급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

**납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제공하자!**

04 **납본 혁신의 방향**

납본 보상,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현행 제도

AI 생성 출판물도 현행 납본 보상 수령 가능
창작성 심사 불가
AI 출판 확산 속도가 제도 대응 속도를 앞지름



전환 방향

납본 보상을 바우처로 전환
출판 생태계 내 용역/서비스에만 사용 가능
재화 구매 불가 원칙

기대구조

일반 출판사

인쇄·유통·편집 등 실제 비용으로 사용
→ 실질적 손해 없음

AI 대량출판 사업자

바우처는 출판 과정 외 현금화 불가
→ 납본을 수익 수단으로 삼는 유인 차단

04 납본 혁신의 방향

해외 사례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보상 없이 의무 납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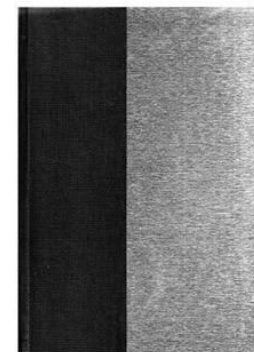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인쇄 및 송부에 요한 비용" 실비 보전

하지만

일본에서 의미 없는 문자를 나열한 책 42권을 실제 판매 없이,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 존재

권당 정가를 64,800엔으로 설정하고 총 136만엔의 보상금을 수령

アレクサンドル・ミャスコフスキー
亞書96



形式: 単行本

価格: ￥ 64,800

国内配送料無料 (一部例外あり).

1点在庫あり。

05 바우처 설계 원칙

용역/서비스 비용만 허용, 재화 구매 불가

사용 가능

인쇄/제작비
유통비
번역비
편집/교정비
도서관 연계 서비스 등

사용 불가

도서 구매
생태계 외부 지출 전반

이유

WHY?



재화는 재판매로 현금화 가능

서비스는 현금화 경로가 제한

출판 생태계 내부 환류 효과 큼

05 바우처 설계 원칙

가맹 등록 기준

인쇄업 사업자 등록 보유 시 자격

추판 유통업 사업자 등록 보유 시 자격

도서관 연계 서비스는 별도 심사

업종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등록 가능

운용 원칙

특정 플랫폼, 업체 독점/편향 없음

업종 내 자유 경쟁

국립중앙도서관이 가맹점 관리 및 정산

기대효과

도서관 행정 부담 최소화

시장 왜곡 없음

'업종 기준=우회 차단 기준' 성립

06 바우처 운용 흐름

납본 접수 및 바우처 발급



출판사는 가맹 업체에 바우처로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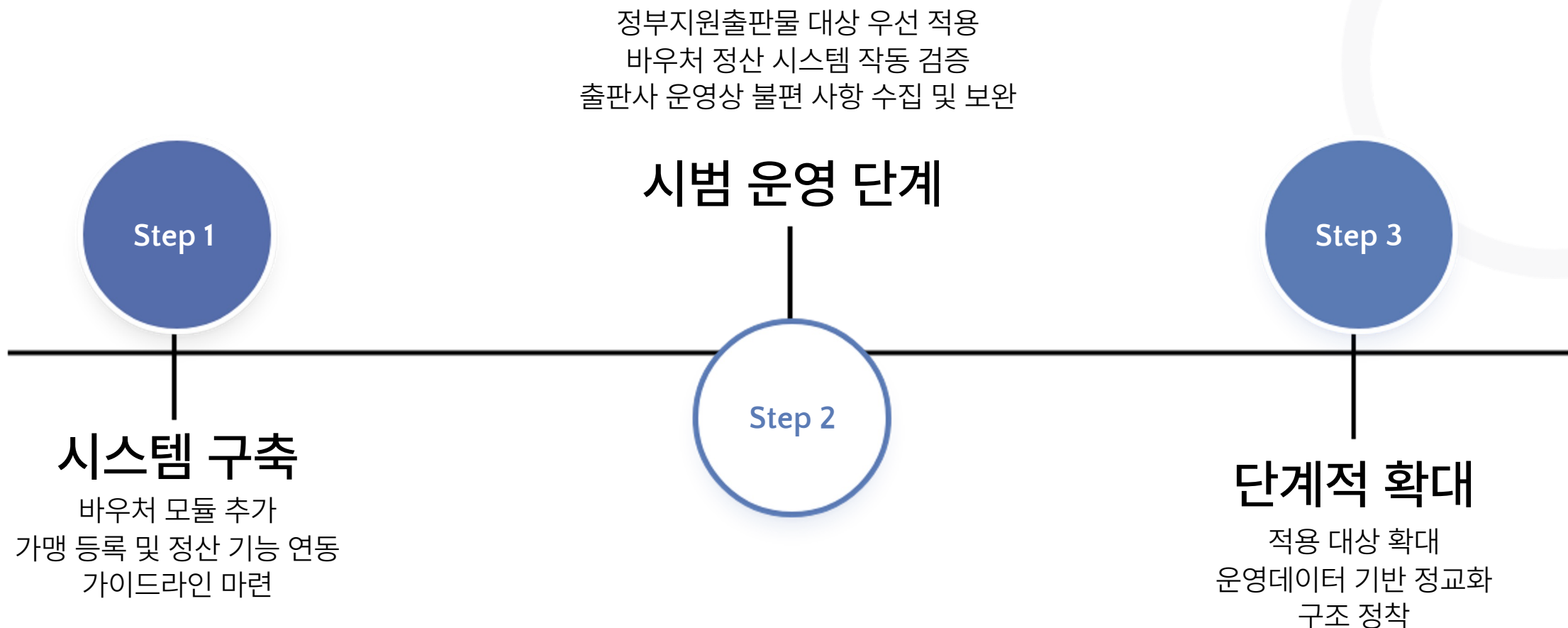
가맹 업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정산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용처 확인 후 가맹 업체에 정산

07 정책 추진 경로

기존 시스템 위에 모듈을 얹고,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07 정책 추진 경로

시범운영 단계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시스템 구축

바우처 시스템 구축

기존 납본 시스템에 바우처 발급 추가

인쇄/유통/교육 등 가맹 업종 확정

가이드라인 제공



전체 납본 대상 전환

모든 납본 출판사 동일하게 바우처 수령

운영 데이터 수집 후 정교화

07 정책 추진 경로

시범운영 단계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시범 운영 단계

구체적 적용 대상

1. 정부지원출판물

- 공공예산으로 제작된 정책안내서, 백서 등

2. 공공지원 사업 결과물

- 지원사업 선정 후 제작된 단행본, 작품집, 성과 자료집

3. 공공용역 및 예술지원 출판물 등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정책보고서, 전시 연계 출판물

검증 목표

- 가맹 업체 사용처 충분성 확인
- 바우처 정산 시스템 작동 검증
- 출판사 운영상 불편 사항 수집 및 보완

08 차별성과 기대효과

차별성

AI 판별 기술 없이도 작동

납본의 경제적 유인을 소멸시켜
창작성 심사 없이 AI 대량출판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출판 생태계 순환

납본 보상이 인쇄, 유통 등
출판 생태계 내부로 소비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대효과



1. AI 대량출판의 유인 차단
2.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3. 출판 진흥 정책과의 연계성

출처

- 일러스트 전체 : 이라스토야 공식홈페이지 <https://www.irasutoya.com/>
- 1. 국회도서관, 「납본」, <https://www.nanet.go.kr/usermadang/etc/clView.do>
- 2.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납본 시스템, 「관련법령」, <https://nl.go.kr/seoji/contents/S20102050000.do>
- 3. 김규환, 정다운, 김수정(2023),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수집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281-306.
- 4. 국립중앙도서관·책과사회연구소,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자 백원근, 2024.10.12.
- 5. 국립중앙도서관·책과사회연구소,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자 백원근, 2024.10.12.
- 6. 동아일보(2025.11.27), 「[단독] AI ‘딸깍 출판’ 최소 9000권, 검증없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1127/132851334/2>
- 7. 한국일보(2026.02.01), 「국립중앙도서관, AI도서 납본 첫 거절... ‘딸깍 출판’ 대책 마련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117290002810>
- 8. leemanparadise.com (2015.11.07), 「亞書による納本制度悪用疑惑」

감사합니다

팀 아비아